

작품 내용

제 목	한 편의 밤
내 용	누군가는 한 줄을 읽지만 누군가는 한 줄을 쓰기 위해 밤을 건넌다. 지워진 문장 위에 또 다른 문장을 올리고, 고친 썬표 하나에 한숨 하나를 남긴다. 세상에 나온 작품은 종이 몇 장일지 몰라도, 그 뒤에는 수많은 망설임과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. 저작권은 글자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, 창작자의 밤과 땀과 마음을 지키는 이름.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.